정교초등학교 도서관 소식지

제17-8호 2017.12.15

1

1

슬기가 샘 솟는 도서관



슬기가 샘솟는 도서관





알림

-장서정검으로 인하여 2018년 1월2일-1월 5일 까지 휴관합니다. (대출불 가 반납가능)

-책 분실 시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만 도서관 이용 을 할 수 있습니다.

-방학 중에는 3권의 도서 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.

-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학교 도서관 책이 있다면 가져다 주세요.

-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 여 도서검색,예약, 자료정 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http:// reading.gglec.go.kr

-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 실 했을 시 도서관으로 문의 주세요.



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책상을 잘 정돈하고, 마음가짐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, 책을 가져다가 가지런히 놓고는 몸을 바른 자세로 책을 대하고, 자세하게 글자를 보며, 자세하고 분명하게 읽는 것이다.

-주희

목차

알림

추천도서

DLS 디지털 도서관 2 전자책 이용안내

다독아, 다독반, 2 인기도서

작가와의 만남 2

추천도서

100만번 산 고양이



글:사노요코 출판사:비룡소

백만 번이나 태어나고 백만 번 이나 죽은 멋진 고양이가 있었 다. 그 고양이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. 그런 데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와 함 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알 게 된다.

새를 사랑한 산



글:엘리스 멕레런 출판사:꽃삽

황량한 바위산과 작은 새의 사랑이야기. 내가 베푼 작은 사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배울 수 있는 작품으로 세계 25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 셀러입니다.

천년의 사랑 직지



글:조경희 그림; 박철민 출판사:대교

직지심경

탄생과정을 오누이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로 담아 낸 장편동화로 눈높이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다.

도서관에서의 약속

- 사뿐사뿐 걸어요.
- 목소리는 소곤소곤
- 음식물 반입금지
- 장난치지 않아요
- 게임은 하지 않아요.

DLS 디지털 도서관 전자책(e-book) 이용안내

* e-book이란?

컴퓨터 등의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제조되는 새로운 개념의 책

● 경기도 DLS 센터에서는 도내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교수-학습을 증진을 도모하

고자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
- 이용대상 :경기도내 학교도서관 이용자
- 제공자료: 총 416종
- -이러닝(e-learning):26종
- -전자책(e-book):390종



* 이용방법

- 1. 학교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
- 2. 하단부에 DLS 배너클릭

3.전자책 바로가기 클릭

4.접속

(학교도서관 아이디와 비밀번호 동일)

(아이디 비밀번호 분실시 도서관으로 문의)

바로접속: http://cyber.gglec.go.kr/index.html

책은 한번 읽히면 그 구실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. 거듭 읽고 애독하며, 다시 손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애착을 느끼는 데서 그지없는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. — 러스킨

다독아, 다독반, 인기도서 (11월)

1위: 권*연 (1학년) - 55권 2위: 이*민(2학년) - 42권 3위: 엄*섭(5학년) - 26권 3위: 이*민(5학년) - 26권 3위: 전*현(1학년) - 26권 4위: 전*강(5학년) - 23권 4위: 이*민(2학년) - 23권

4위: 이*민(2학년) - 23권 4위: 이*진(1학년) - 23권

5위: 전*광(3학년) - 21권

6위: 서 *(3학년) - 19권



인기도서 Best 5!

- 1. (쿠키런) 엉뚱 과학 상식
- 2. 포켓몬 과학 연구소
- 3. 이상한 엄마
- 4. 놓지마 과학
- 5. 하늘 천 天 땅 지 地

작가와의 만남 (김영주 선생님)

"어린이들의 갈등해결은 어린이들의 힘으로" 동화작가 김영주

1966년 서울 출생,1995년 '오늘의 문학' 동화 부문 신인상 수상.

2000년 '참교육문학상' 동화부문 '똥줌 오줌'으로 입상.

김영주 선생님은 1999년 <짜장,짬뽕, 탕수육>(재미마주)으로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낸 작가이다. 작가는 이 한 권의 창작집을 내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끊임없는 창작 수련을 해 왔다.

<짜장, 짬뽕, 탕수육>에서 교실은 '거지, 왕' 놀이로 대변되는, 억압과 힘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. 전학 온지얼마 안 된 주인공은 이 놀이 때문에 힘겨워 한다. 하지만 작가는 작품 속에 절대적 힘을 가진 선생님의 훈화나 감화로

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. '왕, 거지' 놀이로 괴로워하는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 낸 '짜장, 짬뽕, 탕수육' 이라는 놀이로 부조리한 현실을 가볍게 뒤집어 버린다. 어린이의 놀이를 잘 관찰하고,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린이들의 갈등을 어른의 힘이 아닌 어린이들만이 갖고 있는 놀이의 힘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.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일제 강점기의 동화작가 현덕 선생님 이후 오랜만에 나온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.







